

AI를 활용한 글로컬 지역문화 기반 한국어문화 교육 재구성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Glocal Regional Culture Using Generative AI

김현주*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현시점에 대응하여,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활용한 글로컬(Glocal) 지역 문화 중심의 한국어문화 교육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한국어문화교육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보편적 콘텐츠에 치중되어 지역 거주 유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정체성인 '로컬리티(Locality)'를 세계적 보편 가치인 '세계성(Globality)'과 연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를 정보, 실천, 창출의 세 범주로 구조화하고, 생성형 AI를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활용 도구로 설정하였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글로컬 지역 문화 기반 AI 협업형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I 기반 글로컬 한국어 문화 교육 모형은 유학생을 단순한 언어 학습자에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글로컬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한국어 교육, 생성형 AI, 지역문화 리터러시, 로컬리티, 지역 정주

- 차례**
1. 머리말
 2. AI 기반 한국어문화교육의 변화와 글로컬리즘의 교육적 함의
 3. AI 기반 글로컬 지역문화 활용 한국어문화교육 재구성 방안
 4. 마무리

1. 머리말

최근 한국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심각한 출생률 저하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의 고갈은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역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 그리고 최종적인 지역 정주(Settlement)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

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¹ 이제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지향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잠재적 정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정주(Settlement) 지원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² 즉, 한국어교육은 더 이상 언어 숙달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문화교육 현장은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 중심성(Seoul-centrism)’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실제 생활권과는 무관한 서울 중심의 교통, 지명, 문화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거주하고 학습하고 있는 실제 지역 사회의 역사, 사회,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교육적 불일치는 학습자의 실제적 요구와 교육 내용 간의 심각한 괴리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학습 동기 저하와 지역 사회 내에서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³ 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공간의 정체성, 즉 ‘로컬리티(Locality)’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문화 리더십’ 함양이 필수적이다.

학술적 측면에서 로컬리티는 단순히 물리적·지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대 주변’, ‘다수 대 소수’로 대비되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소수자성(Minority)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안적 서사를 구축하는 개념적 틀로 확장된다. 진대연⁴은 “모든 문화는 사실상 지역 문화(Local Culture)”라고 언급하며 지역 기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였고, 전은주⁵는 “교육 환경으로서의 로컬리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접근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로컬리티를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변환하거나 방법론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은 지역 대학이 직면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 그간 지역 문화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와 교수 자료의 부족에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지역 데이터를 학습자 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텍스트로 실시간 생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지역 역사나 무형의 문화를 시각화하여 활용 가능한 학습 자료로 재구성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AI의 등장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서 AI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윤영⁶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연구가 말하기나 쓰기 등 언어 기능 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문화 및 문학 교육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교육 관련 논의 또한 AI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보조적인 자료 제작 사례를 제시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AI가 생성하는 문화 콘텐츠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1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4~5쪽.

2 윤은경·김규훈·이윤주·김태희, 「외국인 정주의 개념화와 한국어 교육의 방향 탐색: 생태학적 체계론(Bronfenbrenner, 1979)을 근간으로」, 『언어와문화』 20(2), 2024, 99~126쪽.

3 강소영, 「한국어교육에서 지역문화와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 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6), 문화와융합학회, 2023, 47~57쪽.

4 진대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역문화 활용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9, 외국어교육연구학회, 2016, 155쪽.

5 전은주,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티」, 『한국언어문화학』 10(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57~160쪽.

6 윤영, 「한국어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5(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6, 125~157쪽.

다. 강소영⁷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 설명 없이 AI를 활용할 경우, 보편적인 한국 문화 지식만을 반복적으로 생성하여 현대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나 담화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셋째,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 모델 제시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글로컬(Glocal) 지역 문화 기반의 한국어문화교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세계적 가치와 결합하는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AI 기술을 통해 이를 학습자 맞춤형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어교육의 외연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실천적 전략인 동시에, 외국인 학습자를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글로컬 시민'로 성장시킴으로써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는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2. AI 기반 한국어문화교육의 변화와 글로컬리즘의 교육적 함의

2.1. 생성형 AI의 등장과 한국어문화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어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상호작용적 맞춤형 학습'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문법 오류를 교정하거나 번역을

수행하는 보조적 도구에 그쳤다면, 최근의 생성형 AI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를 넘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자,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는 교수자, 창의적 활동을 돕는 보조자로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어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⁸

한국어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지닌 독보적인 가치는 텍스트의 정교한 재구성과 인지적 난이도 조절 기능에 있다. 지역의 역사적 문헌, 고전 문학, 혹은 복잡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 기사 등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높은 텍스트를 다룰 때, AI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TOPIK 급수 등)에 맞추어 어휘를 치환하거나 문장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AI는 단순한 텍스트 변환을 넘어, 해당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물 관계도, 사건의 타임라인, 혹은 시각적 이미지와 같은 자료를 즉각적으로 생성해 냄으로써 학습자가 문화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타문화와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해나 갈등 상황을 가상 대화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습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문화 능력을 실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⁹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표준화된 교재와 일방향적 강의 중심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 교수가 현실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학습자 개인의 다변화된 요구와 학습 목적을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밀도 높은 문화 교육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AI와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주도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 성과와 몰입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I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다음

7 강소영, 「한국어 교육에서 챗GPT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화 수업의 교육자료 제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103, 국제어문학회, 2024, 373~403쪽.

8 윤영, 앞의 논문 참고.

9 강소영, 앞의 논문, 2024, 373~403쪽 참고.

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수준, 문화적 배경, 학습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자료'의 즉각적인 생성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기존 교재가 지닌 수도권 중심의 표준화된 교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신 사회 이슈나 학습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한국어 교원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갖추어야 한다.¹⁰ 교수자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학습자의 맥락에 맞게 구조화하여 심화된 문화 학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는 AI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학습 과제를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탐구자로 성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는 한국어문화교육이 지향하는 학문적 문식성(Academic Literacy)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지역성(locality)과 세계성(globality)의 접점으로서의 한국어문화 교육

글로벌리즘(Glocalism)은 세계적 보편성(Global)과 지역적 특수성(Local)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것의 세계화나 세계적인 것의 지역화라는 단선적 과정을 넘어, 양자가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혼종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¹¹

한국어문화 교육 역시 기존의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 모델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서사와 문화적 자산을 세계적 가치와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로컬리티(Locality), 즉 지역성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의 원천이며, 이를 세계성(Glocality)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중층적인 구조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다. 진대연¹²이 지적하였듯 "사실상 모든 문화는 지역 문화(local culture)"라는 점을 상기할 때, 보편적 한국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 뒤에 가려진 구체적인 지역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는 작업은 한국어문화 교육의 본질적 과제이다. 전은주¹³ 역시 교육 환경으로서의 로컬리티가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하며, 학습자가 거주하는 공간적 맥락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지역문화를 글로벌리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교육의 실재감(Authenticity)을 확보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어문화 교육 콘텐츠의 '서울 중심성'은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제적인 환경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교재가 서울의 명소나 교통 체계만을 표준 모델로 제시함에 따라, 유학생들은 정작 자신이 받을 던고 서 있는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소외는 학습 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지역 사회 내 고립을 심화시키고 성공적인 지역 정주(Settlement)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¹⁴ 따라서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사회 통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Local

10 이경남, 「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한국어 교원의 역할과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36(3), 2025, 245~257쪽.

11 김요셉·김현주, 「뽕지순례와 글로벌리티: 성심당 사례를 통한 한국 뽕지 문화의 변용」,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50~61쪽; 박아현·이정애, 「문화간 감수성이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 A대학 재학생과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2024, 273~303쪽; 정옥희,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주제 중심 교양교육 실천: 지역리서치 기반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 교양교육연구학회, 2024, 311~328쪽.

12 진대연, 앞의 논문, 155쪽 참고.

13 전은주, 앞의 논문, 157~160쪽 참고.

14 강소영, 앞의 논문, 2023, 47~57쪽 참고.

Culture Literacy)’를 한국어문화교육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지역 문화 리터러시는 지역에 대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태도(관심과 존중), 지식(역사와 공간 이해), 맥락(자국 문화와의 비교·성찰), 활용(주체적 소통 및 창출)의 네 가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 기반의 한국어문화교육은 로컬리티(locality), 즉 지역적 정체성을 언어화하여 기술하고 이를 교수학습 과정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습자가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특정 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 관습 등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교육의 실재감(Authenticity)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¹⁵ 한국어문화교육은 단순히 언어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적 특수성이 세계적 보편성과 조우하는 접점을 발견하고 이를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으로 소통하게 하는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 결국 한국어문화교육에서의 로컬리티 구현은 소외된 지역 문화를 교육의 전면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학습자가 한국 사회를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생성형 AI라는 초연결적 기술 매체를 활용할 때, 비로소 개별 지역의 문화는 폐쇄적 경계를 넘어 세계적 보편성과 조우하는 ‘글로벌(Glocal)’ 콘텐츠로서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은 지역 혁신의 핵심기관으로 지역 산업 및 사회와 동반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문화교육 역시 대학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기반 교육’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유학생이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주민과 인터뷰하며, AI 도구를 통해 지역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는 경험은 그들을 단순한 외부인에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통합의 실

천적 전략이 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로벌 지역 문화 교육은 지방 소멸 시대에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정책으로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결국 한국어문화 교육에서의 로컬리티 구현은 소외된 지역 문화를 교육의 전면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학습자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이는 지방 소멸 시대에 한국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중대한 학술적 시사점을 지닌다.

3. AI 기반 글로벌 지역문화 활용 한국어문화교육 재구성 방안

3.1. AI를 활용한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원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문화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Local Culture Literacy) 함양을 최우선 원리로 삼아야 한다. 지역문화 리터러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며, 나아가 성찰적 사고를 통해 문화 생산자로 참여하는 통합적 능력을 의미한다.¹⁶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용성과 교육적 실재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재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연결해야 한

15 유춘동, 「강원도 속초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196~205쪽.

16 김요셉·김현주, 「지역문화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강원도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102, 중앙어문학회, 2025, 387~408쪽.

다. 글로벌리즘은 지역적인 것의 세계적 생산과 세계적인 것의 지역적 수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의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되,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나 자국의 문화와 비교·대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실제적 생활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존의 서울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학습하는 지역의 교통, 시장, 축제 등 실생활 맥락을 반영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AI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학습 목적, 구체적인 거주 지역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습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문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언어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AI는 학습자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부담을 줄여주는 디지털 비계 역할을 수행하며,¹⁷ 이를 통해 학습자는 사고의 초점을 단순 언어 습득에서 문화적 의미 탐색으로 확장할 수 있다.

넷째, 비판적 리터러시 및 윤리적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AI가 생성한 지역 문화 콘텐츠에는 정보의 오류나 문화적 편향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AI의 제안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교수자의 지도하에 정보의 정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종합하면, AI 기반 글로벌 지역문화 교육과정의 재구성에는 단순히 AI라는 기술적 도구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자의 거주하고 학습하는 장소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

하여 지역문화 리터러시를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2.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의 AI 협업형 교수·학습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 학습자, AI가 상호작용하는 교수자-학습자-AI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어문학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지역문화 리터러시의 세 범주(정보 문화, 실천 문화, 창출 문화)에 맞춰 AI 기능을 차별화하여 구조화하였다.¹⁸

첫째, 정보 문화 리터러시 단계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공간, 행정 제도, 공동체의 생활 자산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 실천 문화 리터러시 단계에서는 지역 축제 참여나 주민 인터뷰 등 실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실천적 문화 감수성을 함양한다. 셋째, 창출 문화 리터러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지역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주체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재구성은 유학생이 단순한 외부인이 아닌 지역 사회의 인재로 안착하도록 돕는 정주(Settlement) 지원 교육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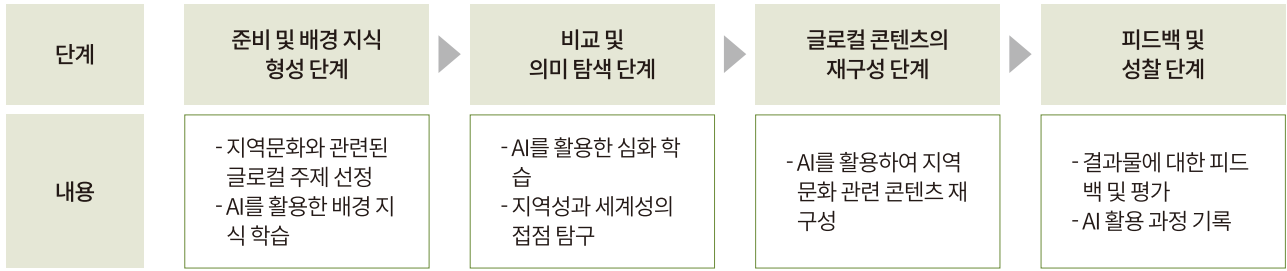
이 모형은 지역 문화를 탐구하고 이를 글로벌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세 범주와 생성형 AI의 기능을 결합한 단계별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 AI-협업형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화하면 <그림 1>과 같다.

3.2.1. 준비 및 배경 지식 형성 단계

교수자가 지역문화와 관련된 글로벌 주제를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 AI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문화 자산의 역사, 명소, 가치, 의미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학습자의 수준에

17 박효정, 「한국어 글쓰기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101,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25, 294쪽.

18 김요셉·김현주, 앞의 논문, 2025, 387~408쪽 참고.



(그림 1)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 AI 협업형 교수·학습 모형

맞게 제공한다. 학습자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한다.

3.2.2. 비교 및 의미 탐색 단계

교수자는 학습자가 선정된 주제에 대해 AI를 활용하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준다. 예컨대,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세계적 보편성과 조우하는 접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자는 거주 지역의 문화 자원을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상호문화적 통찰력을 얻는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고 지역문화의 특수성 등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게 된다.

3.2.3. 글로벌 콘텐츠 재구성 단계

학습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재해석한 결과물을 도출한다. AI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자원의 역사적 유래, 관련 인물, 현대적 의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또는 지역 홍보 쇼츠(Shorts) 대본 작성, 다국어 지역 안내 리플릿 제작, 혹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인터뷰 기사 등을 작성한다. 이는 학습자를 단순한 지식 수용자에서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된다.

3.2.4. 피드백 및 성찰 단계

학습자가 AI를 활용하여 언어 및 구조 등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한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그동안

의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학습자는 AI를 활용한 과정을 기록하고 성찰하며 학습 단계를 마무리한다.

결론적으로 이 모형은 AI 기술을 매개로 지역의 고유한 로컬리티를 세계적 보편 지평으로 확장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의 정주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3.3. 교수자 역량

AI를 활용한 글로벌 지역문화 기반 한국어문화 교육 과정 내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에서 탈피하여, AI 기술과 지역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교수학습 설계자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즉, 교수자는 지역 문화 자산 중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요소를 선별하고, 학습 목표와 지역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정교한 지시문(Prompt)을 설계하여 AI가 최적의 교육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지역문화를 재해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음으로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학습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자는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학습 자료를 학습자와 함께 확인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해야 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지역 문화를 왜곡 없이 수용하도록 돕는 필

수적인 중재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다양한 창작물과 학습자들의 AI 활용 과정을 기록한 자료에 대해 교수자는 비판적 성찰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언어적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 문화와 한국 지역 문화 사이에서 발견한 상호문화적 가치가 올바르게 형상화되었는지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결국, AI 시대의 한국어 교원은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활용해 지역 사회와 학습자를 연결하는 '사회 통합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 마무리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Settlement)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로컬 지역 문화 중심의 한국어문화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서울 중심적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로컬리티(Locality)를 세계적 보편 가치와 연결하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 함양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AI는 고난도의 지역 문화 텍스트를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재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성함으로써 문화 교육의 인지적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인지적 노력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 문화 리터러시를 구조화하고,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

국어 교육의 외연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유학생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사회 통합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 활용 차원을 넘어 교육과정 설계와 상호문화 성찰의 핵심 매개로 체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개괄적인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기에, 제안한 모델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학습자 반응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과 문화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윤리적 검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유학생의 지역 정주는 교육적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므로,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의 협력 공고히 하고 정주 가이드 라인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로컬 지역 문화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이 외국인 학습자를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 이슈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글로컬 시민 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소영, 「한국어교육에서 지역문화와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 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6), 문화와융합학회, 2023.
- _____, 「한국어 교육에서 챗GPT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화 수업의 교육자료 제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103, 국제어문학회, 2024.
- 김강희,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연구: 부산 지역 로컬리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1), 교양교육연구학회, 2024.
- 김요셉·김현주, 「지역문화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강원도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102, 중앙어문학회, 2025.
- 김요셉·김현주, 「뽕지순례와 글로벌리터: 성심당 사례를 통한 한국 뽕집 문화의 변용」,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류승의·박하희·조윤경, 「한국어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 연구」, 『언어와문화』 21(3), 2025.
- 박아현·이정애, 「문화간 감수성이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 A 대학 재학생과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2024.
- 박효정, 「한국어 글쓰기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10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5.
- 유춘동, 「강원도 속초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윤영, 「한국어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15(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6.
- 윤은경·김규훈·이윤주·김태희, 「외국인 정주의 개념화와 한국어 교육의 방향 탐색: 생태학적 체계론(Bronfenbrenner, 1979)을 근간으로」, 『언어와문화』 20(2), 언어와문화학회, 2024.
- 이경남, 「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한국어 교원의 역할과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36(3), 서울교대, 2025.
- 전은주,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터」,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 정옥희,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주제 중심 교양교육 실천: 지역리서치 기반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 교양교육연구학회, 2024.
-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진대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역문화 활용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외국어교육연구소,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Glocal Regional Culture Using Generative AI

Kim, Hyun-Joo |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model for restructur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around glocal regional culture through the use of generative AI. The study responds to the urgent need to support the loc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ntext of a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increasing regional depopulation. It critiques the existing curriculum for its strong emphasis on universal content centered o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hich often fails to reflect the lived realities and practical needs of students residing in non-metropolitan regions. As an alternative, the study links locality, understood as the identity of the region in which learners live, with globality as a framework of shared universal values. It organizes regional cultural literacy into three dimensions—information, practice, and creation—and positions generative AI as a cognitive assistant and discourse mediator. On this basis, the study presents an AI-assisted teaching model that aims to foster international students as active glocal citizens.

Keywords Korean Education, Generative AI, Regional Culture Literacy, Locality, Regional Settlement.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